

광주시 ‘하늘 나는 자동차’ 시대 연다

인공지능·미래차 산업 역량 결합
미래항공모빌리티 선도도시 추진
차처럼 운전하는 비행시대 준비
2350억원 투입 산업 생태계 조성

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역량을 결합한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선도 도시조성'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지상 이동 수단을 넘어 하늘길을 여는 3차원 입체 교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도시에서 글로벌 미래항공 허브로 재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처럼 사람이 운전하는 비행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획연구'를 완료하고, 오는 2033년까지 총 235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 발굴 및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광주가 보유한 AI 집적단지 및 자동차 산업 벨트의 제조 역량을 AAM 산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제조, 인프라, 인력양성, 서비스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1506억원을 투입해 미래차산업 내에 전라목자(드론) 양산 및 비축기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302억원을 들여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500억원 규모의 MRO(유지·보수·운영) 및 부품 품질인증 지원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력양성 분야에는 42억원을 투입해 실무형 융합 인재 양성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초기 상용화를 위한 4개 핵심 노선도 도출했다. 우선도가 가장 높은 제1노선은 '빛그린산단-임곡



빛그림이 은빛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8일 오전, 나주 빛그림혁신도시의 전망대와 혁신도시 전경이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여 도심 전체가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은빛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역-첨단산단'을 잇는 물류이송형 도시권 노선이다. 자동차로 40~50분 소요되는 거리를 10분 내외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제2노선은 '빛그린산단-광주송정역' 구간으로 일반교통형 모델이다.

광역 및 공공 서비스 노선으로는 '광주송정역-무안공항'을 연결하는 관광교통형 노선과 '전남대병원-남원의료원'을 잇는 응급의료공공형 노선이 포함됐다.

응급의료 노선은 권역상급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을 직결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닥터 UAM(도심

항공모빌리티)' 개념이 도입된다.

하늘길의 교통 상황과 제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공역 분석 결과, 광주공항 관제권(반경 9.3km)과 군공항 작전구역 등 제약 요인이 존재하지만, 시는 하천과 도로 중심선을 활용한 항로 설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운행 고도는 400~1000ft(120~300m)를 UAM 전용 공역으로 활용하고, 소형 드론(400ft 이하) 및 유인 항공기(1000ft 이상)와 수직적으로 분리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2026년까지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2028년부터 사업 추진에 나선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배터리 관리시스템과 AI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단순한 기계 운행을 넘어 제조와 데이터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미래항공 산업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실질적 권한 이양하라” 강력 촉구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중앙정부 소극적 태도 강력 비판
시민 염원 담은 결의문 채택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공동결의문을 내고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실질적 권한 이양'을 정부에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의 통합 의지와 달리 기득권에 안주하는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가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8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AI·에너지 등 핵심 특례의 전향적 수용, 4년 한시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 명문화, 지방 주도 성장에 걸맞은 파격적인 재정 권한 부여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또한 시도 간 의석수 차이로 인한 원 구성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회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 특정 지역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 명기 및 경과조치 마련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양 시도와 국회의원들은 9일 국회 입법 공청회와 10일부터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맞춰 공동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와 다른 부처의 입장 때문이다.

지난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 386개 조문 중 119개에 달하는 핵심 특례에 대해 중앙부처

가 '불수용' 의견을 냈다.

에너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지역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인·허가권 이양이 거부됐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대한민국과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역시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막혀 통합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알맹이 없는, 무늬만 지방 이양인 반쪽짜리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침엔 ‘뽕뽕’ 낮부터 풀린다

광주·전남 최고 10도까지 올라

매서운 겨울 바람이 몰아치던 광주·전남에서 이번 주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날씨가 풀리겠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9일 낮부터 광주·전남의 기온이 점차 올라 14일부터는 아침 기온까지 영상권에 머물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로 평년보다 낮아 출근이나, 낮부터는 최고기온이 4~10도까지 오르면서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10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며 흐려져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10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나 눈이 시작돼 11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내외다.

기상청은 10일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지표면 온도가 낮아 비가 내리는 즉시 얼어붙는 '어는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 동부권인 여수와 광양, 순천, 구례, 보성 등지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내리는 비나 눈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고 노면이 매우 미끄럽겠으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과일값 다 올랐는데 배만 내렸어요” ▶6면

KIA 캠프 - 김도영 “그라운드에서 살고파” ▶18면



주요 미술관 '2026 전시 라인업' 공개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태양·바다·호수를 품은 '관광레저, AI산업의 핵심 허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Dynamic
레저, 스포츠
젊음과 역동성

Joy
정원, 리조트, 수변
즐거움과 자유로움

Energy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AI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RE100산업시설

구성지구
정원, 재생에너지
스마트도시

삼호지구
골프산업 중심의
관광레저

삼포지구
모터스포츠,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라남도
JeollaNamdo

솔라시도
SolaSeaDo